

# “지리산 성삼재 도로 폐쇄하자”

### 인근 지자체·환경단체 “등산객 몰려 환경 훼손” 모노레일·무공해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은 이견



#### 25일 실상사서 토론회

지리산을 관통하는 성삼재 도로(전남 구례군~전북 남원시)가 등산객을 무더기로 끌어들여 노고단 일대는 물론 중추능선까지 마구 훼손시키는 '지름길'로 지적되면서 이 도로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환경단체, 학계 등은 지리산을 지키기 위해 궁극적으로 성삼재 도로를 폐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이 도로를 대체할 수단으로 케이블이나 순환 모노레일 설치, 무공해버스 운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리산생명연대는 18일 이와 관련, “성삼재 관통도로 개통 이후 노고단에는 종전보다 20배가 넘는 탐방객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노고단의 생태계뿐 아니라 지리산국립공원 전체 생태계를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생명연대 측은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량 통행을 제한하되 전기버스 등 무공해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탐방객 수를 점차 줄이고, 장기적으로 성삼재 도로를 폐쇄해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고단의 행정구역인 전북 구례군은 성삼재 도로가 국립공원 내에

있는데도 지방도로 지정돼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기회에 도로를 아예 폐쇄하고 케이블가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례군은 케이블가가 무분별한 차량 통행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막고, 지리산 탐방객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구례군은 2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리산 온천랜드가 있는 구례군 산동면 좌사에서 성삼재까지 2.9km 구간의 케이블가 설치 계획을 세우고 이미 환경부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

그러나 지리산권 통합문화 개발 사업을 위해 구성돼 있는 경남 함양

·산청·하동군, 전북 남원시와 장수군 등 영·호남 7개 시·군은 공해가 없는 모노레일을 설치, 지리산 주변을 순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성삼재 도로를 둘러싼 논란이 이처럼 확산되자 ‘지리산 생명연대’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은 오는 25일 남원 실상사에서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 관통도로

이대로 놔둘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삼재 도로의 문제점을 공론화시켜 범국민적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예정인 강혜순(성신여대)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마구잡이로 도로 개설로 지리산이 490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식물들의 교란 현상이 생기고, 야생동물들도 살 수 없는 지경이 됐다”며 “성삼재 도로를 폐쇄하고 보행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skim@kookje.co.kr



국제신문 이정섭 회장이 18일 오후 본사 문화센터 중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kimsh@kookje.co.kr

### 본사 이정섭 회장 취임식 가져

국제신문 이정섭(능인선원 원장) 회장의 취임식이 18일 오후 국제신문 문화센터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제신문이 부산 울산 경남을 대표하는 1등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사원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자”면서 “누구라도 신뢰할 수 있는 경영의 투명성을 견지하도록 할 것”이

라고 밝혔다. 서울대 대학원 종교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 회장은 서울고교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0년 한국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민주화운동으로 강제해직된 뒤 출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 의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김선호 기자 wink23@kookje.co.kr

### 올 한가위는 밤에 성묘하세요

“올 추석엔 야간 참배하세요.”

부산시 시설관리공단 산하 영락공원사업단은 18일 그동안 주간(오후 6시까지)에만 운영하던 영락공원을 올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1일부터 8일까지는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해 야간 참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영락공원은 추석 연휴 기간 참배객과 성묘객 40만여 명이 몰려 큰 혼잡을 빚어왔다.

#### 부산 영락공원 운영시간 연장

#### 외부차량 통제 주차공간 확보

공원요지 입구에서 친선부락 입구까지 외부 진입차량을 통제해 통행 혼잡을 막는 한편 금정구청과 금정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청룡초등학교 500대, 금정중학교 600대, 선동·청룡동 우회도로 300대 등 총 3개소에 140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공원 내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묘소 안내, 무연고자 찾아주기, 미야보호 등 비상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영락공원 측은 또 추석 당일인 10월 6일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영락공원 전용도로와 범어사 방면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아태 축산학술대회 개막 제12회 아시아·태평양 축산학회 학술대회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35개국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김성호 기자 kimsh@kookje.co.kr

### 기자수첩 불신 키운 성과급 반납 투쟁

“공교육은 죽었다. 그런데도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는 지금도 투쟁 중이다.”

18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경남지부들이 같은 내용의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사모는 정부의 교원 차등 성과급 지급에 대해 반발하는 전교조의 성과급 반납 투쟁을 지켜보면서 이들의 투쟁을 한마디로 ‘무의미한 쇼’라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받지 않겠다는 성과급을 즉각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교사들을 향해 “우리 나라에만 있는 방학 중 ‘유급제’도 명분이 없으니 반납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난 14일 전교조가 총 7만 9700여 교원의 성과급 758억 원 반납운동을 전개하면서 학사모 등 학부모 단체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전교조는 성과급 차등 지급에 대해 “교사의 교육활동은 가시적으로 평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인적 능력이 투여되는 행위로 교육활동의 성과를 서열화하는 것은 교사의 인격을 서열화하는 동시에 초·중등 교육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생각은 다르다. 학사모 등은 “성과급 반납 투쟁은 교사 평가를 거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인된 행동”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같은 생각의 자변에는 교원들에 대한 불신이 상당 부분 내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원들을 향해 “신성한 교육을 하려 교단에 선 것인지, 사명감 없이 평생이 보장되는 직업으로만 생각한 권익에만 관심있는 교사들인지 알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교원의 보수 체계가 오직 경력 중심의 단일호봉제인 탓에 능력에 상관없이 같은 경력의 교사는 동일한 보수를 받으면서 교원들이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교조는 “열심히 노력하는 교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이보다 더 절실한 것은 소모적인 대립 구도가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들의 상호 신뢰 속에 아이들에게 행위로 교육활동의 성과를 서열화하는 것은 교사의 인격을 서열화하는 동시에 초·중등 교육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생각은 다르다. 학사모 등은 “성과급 반납 투쟁은 교사 평가를 거부하고자



이종호 울산경남사회팀 jhlee@kookje.co.kr

### “경남 과거사 규명 343건 신청”

송기인 진실화해위원장 밝혀 “산청 민간인 학살은 조사 중”

경남지역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위원장 송기인 신부)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343건이며, 이 중 산청군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 송기인 위원장은 18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

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진실화해위 측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서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안은 집단희생 관련 326건, 인권침해 및 학정판결 관련 9건, 항일독립운동 관련 8건 등이다.

조사가 착수된 산청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9년 7월 제3연대 소속 1개 소대병력이 빨치산으로부터 총

격을 받아 모두 사망하자 군이 다음해 2월까지 200여 명의 민간인을 희생시켰다며 진상을 밝혀달라고 신청한 사건이다.

송 위원장은 이와 관련, “산청사건의 경우 조사는 진행하겠지만 시한이 촉박해 유급발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마산 진전면 여항리 민간인 집단 희

생사의 유급이 지역 대학의 컨테이너에 보관되는 등 허술한 유급 관리와 유가족 찾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유급 관리 및 처리가 시급하나 유족과의 관계 문제와 함께 우리 위원회 사업의 성격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 검토사항이 많아 당장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국전쟁 발생 직후인 1950년 7월 김해시 생리면 낙랑고개와 진례면 냉정고개 등 김해 일대에서 보도연맹원들이 경찰과 방첩대 정보 참모부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과 미군 폭격 사건 등이 신청돼 있다.

송 위원장은 “과거의 잘못된 진실 규명을 통한 올바른 과거사 정리가 이뤄져야 진정한 국민화해가 이뤄질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과거사 진상규명 신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접수 가능하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                                                                                                                                                                                                        |  |                                                                                                                                                                                                     |  |                                                                                                                                                                                                                                             |  |                                                                                                                                                                                                                                                                      |  |
|-------------------------------------------------------------------------------------------------------------------------------------------------------|--|--------------------------------------------------------------------------------------------------------------------------------------------------------------------------------------------------------|--|-----------------------------------------------------------------------------------------------------------------------------------------------------------------------------------------------------|--|---------------------------------------------------------------------------------------------------------------------------------------------------------------------------------------------------------------------------------------------|--|----------------------------------------------------------------------------------------------------------------------------------------------------------------------------------------------------------------------------------------------------------------------|--|
| <b>대한민국대표종합여행기업</b><br><b>롯데관광</b><br><b>LOTTETOUR.com</b>                                                                                            |  | <b>「제31회 관광의 날」</b><br><b>금탑산업훈장 수상</b>                                                                                                                                                                |  | <b>TTG 선정</b><br><b>대한민국대표 최우수여행사 5회 수상</b>                                                                                                                                                         |  | <b>한국표준협회 선정</b><br><b>한국 서비스대상 6년 연속 수상</b>                                                                                                                                                                                                |  | <b>한국능률협회 선정</b><br><b>대한민국 마케팅대상 5년 수상</b>                                                                                                                                                                                                                          |  |
| <b>부산 지점 : 601-2300</b><br><b>해운대 : 740-4440 서면롯데호텔: 808-6162</b><br><b>북구점 : 334-8558 동래롯데백화점: 668-4800</b><br><b>사하점 : 202-9595 부산남구점: 6100-990</b> |  | <b>동경, 하코네, 후지산, 닛코 OR 디즈니랜드 4일</b>                                                                                                                                                                    |  | <b>프리미엄 방콕, 파타야 5일</b>                                                                                                                                                                              |  | <b>5만원 할인 중국</b><br><b>북경, 장가계 5일 ₩929,000부터</b><br><b>상해, 장가계 5일 ₩899,000부터</b>                                                                                                                                                            |  | <b>5만원 할인 중국</b><br><b>북경, 장가계 5일 ₩929,000부터</b><br><b>상해, 장가계 5일 ₩899,000부터</b>                                                                                                                                                                                     |  |
| <b>미주 부산출발</b><br><b>미서부 일주 7일 ₩1,690,000부터</b><br><b>미서부 완전일주(3대개념, 송백) 9일 ₩1,790,000부터</b>                                                          |  | <b>동남아</b><br><b>천가지 표점-홍콩 3/4일 ₩499,000부터</b><br><b>마닐라, 보라카이 4일 ₩699,000부터</b><br><b>베트남(하롱베이), 캄보디아(앙코르왓) 6일 ₩1,149,000부터</b><br><b>대만, 화롄 復興航空 3/4일 ₩589,000부터</b><br><b>방콕, 파타야 5일 ₩499,000부터</b> |  | <b>중국</b><br><b>북경, 만리장성, 천하제일성 4일 ₩649,000부터</b><br><b>북경, 만리장성 4일 ₩589,000부터</b><br><b>상해, 소주, 항주 3일 자유일정 5일 ₩549,000부터</b><br><b>상해, 게임 4/5일 ₩559,000부터</b><br><b>항주, 황산, 요림선경 5일 ₩689,000부터</b> |  | <b>일본</b><br><b>북해도 환상여행 4일 ₩1,029,000부터</b><br><b>[초특가]북해도 알찬여행 3일 ₩699,000부터</b><br><b>오사카, 나라, 고토, 고베, 아리마온천 3일 ₩529,000부터</b><br><b>동경 자유여행 4일 ₩429,000부터</b><br><b>[뉴캐슬리]북큐슈 특급온천 4일 ₩359,000부터</b><br><b>[코비]북큐슈 온천 3일 ₩419,000부터</b> |  | <b>골프</b><br><b>청도 골프 3/4일 ₩749,000 ~ ₩949,000</b><br><b>북경 골프 [90홀] 4일 ₩599,000부터</b><br><b>항주 골프 [90홀/126홀] 4/5일 ₩879,000부터</b><br><b>국내 부산/출/발</b><br><b>실속해피투어 3일 ₩195,000부터</b><br><b>알뜰 해수온천 제주 3일 ₩229,000부터</b><br><b>게스트 하우스 펜션 제주 자유 렌트카 3일 ₩205,000부터</b> |  |